

高級公務員의 成分變化**

朴 東 緒*

〈目 次〉	
I. 序	III. 結 語
II. 成分의 變化	

〈要 約〉

사회과학도들이 社會現象이나 行政現象을 연구하는데 있어 行政人에 관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으며, 결정권자의 成分이 그들의 決定에 영향을 주는 要因중 하나로 간주되어 決定權者의 成分에 대해서는 자주 分析·연구되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中央政府의 고급 공무원의 權力이 막강하고 많은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점, 그리고 그간의 성분이나 가치관의 연구가 일회적·일시적이 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런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가급적 장기간에 걸쳐 그간 성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 평가하는 것은 우리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대상을 高級公務員, 그것도 國家公務員 一般職 1級에서 5級까지 한정하여, 기존의 통계서나 연구의 결과를 근거하여 연구하였다.

모든 項目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기존문헌에 근거해야 하므로 ① 公務員數의 階級別 變化, ② 年齡別 變化, ③ 性別 變化, ④ 宗教別 變化, ⑤ 學歷別 變化, ⑥ 任用方法別 變化, ⑦ 專攻別 變化 등으로 나눠 살펴보았으며 이는 職級別로 특색과 변천을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며, 行政研究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다.

I. 序

1. 研究 目的

社會科學徒들이 社會現象이나 行政現象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現象. 行動 및 決定의 主體인 行政人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으며 따라서 지금도 決定權者의 成分(Social Background)에 대하여 자주

*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敎授

** 이 논문은 1990년도 서울大 發展基金의 지원에 의한 것임.

分析, 研究가 되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의 原因은 決定者의 成分이 그들의 決定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으며 특히 社會主義國家에서는 대단히 이를 중시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社會科學의 발달은 成分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견해가 여러가지로 제시되어 왔던 것이다.

첫째로 成分보다는 決定者의 가치관, 동기, 인지 등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여 왔고 많은 연구가 이들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學問의 진진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적지 않게 연구가 여러번 이루어졌으나 주의를 요하는 것은 行政人들이 얼마나 솔직한 답을 하느냐 하는 것이며 잘못하면 결과가 오도되기 쉽다고 하는 점에서 많은 연구의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공직자의 경우는 결정이나 행동의 결과를 근거로 평가하는 것이 옳은 분석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로 行政人이 결정하는 것은 홀로 진공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구조적 여건과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國內외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行政人은 거대한 體制를 구성하는 一部分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行政人은 이와 같이 조직구조 및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一方의 受動的으로 영향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모든 行政人이 同一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個人性의 여지는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셋째, 우리의 경우 權力至上, 地位重視의 文化가 지배하고 있어 많은 사람 특히 權力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成分, 價値觀이 과거에 어떠하였던 일단 權力界에 몸담은 후에는 보다 많은 權力, 높은 地位를 장악하기 위하여 종래의 그의 成分이나 價値觀에 비추어 다른 것으로 탈바꿈을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도 우리의 경우 옳다고 평가되나 옛날과 달리 교육수준의 급속한 신장은 특히 6共後에 行政界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그들 중에는 적지 않은 수의 젊은이가 自身の 희생을 무릅쓰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하려는 용기있는 행동을 한 것을 全敎組, 監査院, 建設部, 保安司 및 최근의 不在者 투표고발 등의 경우 체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成分研究에 대한 異議나 修正論議가 제기되고 있어 보완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연구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우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우리의 權力構造는 물론 權力分立을 지향하고 있지만 해방후 현재까지 3府中 行政權이 막강하며 특히 중앙정부의 고급공무원의 權力은 막강하다고 하는 것.

둘째 이들이 權力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權威主義的인 성격으로 인하여 人事權者의 관심사에 대하여는 스스로 결정에 참여 하거나 옳은 조언조차 하는 것을 주지 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결정을 소수 고위직자가 독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고급공무원의 경우 많은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6共後 약간 증가하고 있는 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그간 필자 자신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성분이나 가치관에 관한 연구를 하여 왔으나 거의다 一回的, 一時인 것이었으며 해방후 40餘年이 지난 지금 이 기간을 時系列別로 그간의 변천을 정리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번에 一回的 一時的인 것이 아니고 가급적 장기간에 걸쳐 그간 成分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것을 분석 평가 하는 것은 우리 行政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2. 對 象

연구대상으로서 모든 공무원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우선 정보상의 어려움도 크지만 수고에 비하여 보람이 적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서는 제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급공무원에 한정했으며 그것도 國家公務員中 一般職에 한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原則的으로 國家公務員 一般職 1級부터 5級까지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權力이나 行政權의 행사면에서는 이에 한정하지 않고 各 部處의 長次官이 주가 되는 政務官을 포함하여야 하나 정보수집이 어려워 1次對象으로 하지 않고 다만 실술한 1次對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가능한 한 언급하려고 하며 이와 같은 점은 政務官에 한정하지 않고 地方公務員이나 外國의 경우도 수시로 언급하려고 한다.

時期的으로 1948년부터 현재까지 포함되어야 하나 정보의 수집이 1960년 전

후까지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1960년 전후부터 1980年代末까지에 한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서도 1960年代는 정보가 부족하여 신빙성이나 일관성이 취약할 수 밖에 없음이 유감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成分이라고 하는 경우 무엇을 이 안에 내포하여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이에 부합되는 것만 논의가 되어야 하나 이번 연구가 이것을 위해서 수집된 정보에 입각해서 분석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30년간 여러시기에 여러사람이 수집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전술한 연구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비중이 큰 항목만 선택하여 대상으로 할 수 없었으므로 중요시되는 것이 망라될 수 없었다.

3. 方 法

이번 연구만을 위해서 새로이 정보를 지난 30년이나 소급하여 수집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통계서나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인데 그중에서도 첫째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총무처가 지난 5회(1969, 1974, 1978, 1983, 1988년)에 걸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한 것이 되는데 유감인 것은 1969년의 것과 1974년의 경우 印刷物로 刊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의 통계처리한 것 自體를 현재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단히 믿어지지 않은 일이나 이것이 그간 우리 行政의 현주소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만 있으면 5회 즉 20年間의 변화를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겠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後 3回間인 10년간의 변화만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각 회마다 수록된 통계의 내용이나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不充分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인사관계 각종통계자료, 국무원사무국, 1959년.
- ② 국가공무원 학력별 및 급별 경력실태 조사표, 국무원사무국, 1960년.
- ③ 1960년 1월에 중앙청의 국장 70명중 60명, 과장 284명중 255명으로부터 받은 질의서 내용을 근거로 집필한 것. 朴東緒, 韓國官僚制度의 歷史的 展開, 韓國研究圖書館, 1961, pp.208-13.

④ 朴東緒, 韓國官僚制度의 歷史的 展開, 韓國研究圖書館, 1961.

⑤ 1962년 1년간 中央公務員教育院에 교육받으러 온 약 1,600명의 4급(당시 3급甲類) 이상의 공무원에게 질의서를 배부하여 조사한 것을 근거로 발표한 글로서 朴東緒, 「韓國高級公務員의 問題點」, 行政管理·3호, 1963.

⑥ 1966년 6월 1일 현재 5급(당시의 3급 乙類) 6,833명중 670명을 4급(당시

3급 甲류) 2,870명중 654명을, 3급(당시의 2급 乙류) 229명 중 201명을 2급(당시의 2급甲류) 225명중 114명을 선정하여 이력서를 조사한 것과 1966년 7월과 8월 사이에 全國적으로 고급 공무원에게 질의서를 배부하여 658매를 회수한 것을 근거로 金雲泰, 朴東緒, 金海東, 崔鍾起 교수와 共同研究한 것을 俞焄 교수가 집필한 「韓國高級公務員의 社會的 背景」, 行政論叢 4권 2호, 1966, pp. 243-66.

⑦ 1948년 8월 건국시 부터 1967년 8월 까지의 長官, 273명, 次官 259명, 局長 786명의 이력서를 조사해서 발표된 박동서, 「韓國 行政府의 高級 管理者의 資格조사」, 行政論叢 6권 2호, 1968.

⑧ 1967년에 중앙청의 국장 93명에 질의서를 배부하여 70매를 회수한 것을 근거로 집필한 글 朴東緒, 「高級管理者의 訓練需要」, 行政論叢 6권 1호, 1968.

⑨ 1971년 12월부터 1972년 1월간 중앙청의 국장 176명에게 질의서를 배부하고 회수한 것중 175매를 근거로 집필한 글 박동서, 이채진, "Bureaucratic Elite and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Dae-Sook Suh and Chae-Jin Lee, (eds), Political Leadership in Kore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

이상과 같은 기존문헌 중 이번 연구의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정리하여 成分의 變化를 추적해 보았다.

II. 成分의 變化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 날에 소급해서 成分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기존문헌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여기서는 ① 公務員數의 階級別 變化 ② 年令別 變化 ③ 性別 變化 ④ 宗教別 變化 ⑤ 初任方法別 變化 ⑥ 學歷別 變化 ⑦ 專攻別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 따라서 成分中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것을 例示하면 出生地, 出身大學 같은 것이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나 정보부족으로 일관성있게 검토할 수 없는 것이 유감으로 생각된다.

1. 公務員數

1960년 前의 총 공무원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 어려우나 1958년에 203,550명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의 내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數字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비교적 정확한 것은 1961년부터라고 하겠으나 그후 增加率의 차이가 年度에 따라 적지 않음을 다음의

1) 대한민국통계연감, 1959, p. 225.

〈표 1〉 공무원總數(1958)

(단위 : 명)

別 定 職	77,552	別 定 職	77,552
一 般 職	130,998	四 級	23,825
一 級	63	五 級	62,701
二 級	319	臨 時 職	7,410
三 級 甲 類	2,650	勞 務 者	31,694
三 級 乙 類	2,236	合 計	208,550 ¹⁾

〈표 2〉 공 務 員 數²⁾

(단위 : 명)

구 분 연 도	人口數 (단위: 천명)	全 體 公務員	國 家 公務員	地 方 公務員	合 計	一般職公務員		
						1~3級	4~5級	6~9級
1960	25,012	237,476	123,037	111,180	234,217	469	7,633	115,522
1971	32,883	436,636	359,600	72,161	431,761	878	13,342	131,391
1980	38,124	596,431	438,254	150,566	588,820	1,347	20,638	181,338
1987	41,575	705,053	477,146	216,451	693,597	1,010	18,855	181,732
1990	42,869	818,121	539,869	264,375	804,244	1,201	23,103	217,233
1991	43,268	832,034	545,903	272,072	827,975			

〈표 3〉 各 項 目 別 增 加 率³⁾

(單位 : %)

구 분 연 도	人 口	全 體 公務員	國 家 公務員	地 方 公務員	一般職 公務員		
					1~3級	4~5級	6~9級
1960~71	2.5	5.72	13.53	0.56	6.49	1.83	2.18
1972~79	1.69	3.31	1.79	9.36	4.47	2.88	3.04
1980~87	1.29	2.90	1.86	5.51	0.21	1.45	1.28
1988~90	1.03	5.08	4.21	6.91	7.03	5.96	6.06
1960~90	1.81	4.26	6.35	4.86	4.18	2.46	2.58

表에서 볼 수 있다.

이들 表에서 여러가지 특색을 파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 몇가지를 지적하
 려면 다음과 같다.

① 人口增加에 비하여 전체 공무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발전과 行
 政機能의 증대 특히 교육공무원의 급증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口當 公務員수는 증가하여 1960년에 人口 1,000명당 공무원수가
 3.49인이었는데 1990년에는 19.08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② 우리의 경우 국가공무원수가 지방공무원수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集權體

2) 朴東緒 外 4人, 작은 정부의 구상과 실천전략, 현대사회연구소, 1992, p. 63.

3) 상계서, p. 64.

제로 인한 것이며 앞으로 自治化가 진척되면 지방공무원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된다.⁴

③ 전체 공무원수 증가에 비하면 一般職 公務員은 적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3급인 고급공무원의 경우는 월등히 높은 率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4.18 2.58).

④ 時代別로 보면 60年代와 6共後에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60年代는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것이며 6共後의 증가는 교육, 경찰 및 5共초기의 수많은 해직자의 복귀 등이 원인이라고 하겠다.

⑤ 다음은 범위를 한정해서 國家公務員 一般職만의 변천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國家公務員一般職 (단위 : 명)

年 度	職 級	職 級				
		1	2	3	4	5
1978		60	284	433	3,079	6,670
1983		38	243	368	2,695	6,630
1988		62	314	363	2,499	6,866

1978년에 비하여 1983년에 고급공무원이 감소한 것은 5共初期에 크게 감축한 것과 1982년에 체신부의 1部가 通信公社로 발족한데 원인이 있으며 그후 1988年末에는 다시 특히 1,2級の 경우 증가하고 있으며 한가지 이해 하기 곤란한 것은 4급의 감축인데 전매청의 公社化(1987년)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⑥ 이러한 일반적 공무원 중 소위 行政職列에 속하는 공무원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行政職列公務員數 (단위 : 명, %)

年 度	人 員 數		一 般 職 公 務 員 總 數	行 政 職 列 人 數
	國 家	地 方		
1983	國 家	58	82,523	26,783(32.5)
	地 方	35	105,906	67,742(64.6)
1988	國 家	70	73,743	24,222(32.8)
	地 方	47	124,011	79,568(69.8)

註 : 1983년은 一般職 1~9급과 연구직 포함한 숫자이며

1988년은 一般職 1~9급만 포함한 것임.

첫째, 職列數에 비하여 얼마나 行政職列이 비대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一般行政人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國家에서는 일반적으로 地方公務員數가 월등히 많이 되어있다. 日本의 경우 양자의 比率는 1 : 2.84이므로 거의 3배가 되고 있다(1987년).

둘째, 地方公務員의 경우 특히 行政職列인이 65%와 70%를 占하고 있어 국가공무원의 거의 두배가 되고 있어 이러한 사람으로 전문화되고 있는 도시행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고 하겠으며 1988년의 경우 더 比率이 증가하고 있어 역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年 齡

年齡에 관한 통계는 1978년의 전 공무원조사시부터는 정확하게 나와 있으며 그전의 경우 1962년에 內閣事務處에서 조사 발표한 것이 하나 있으나 공무원의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취약점이 있으나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 6〉 公務員 年 齡 別 (단위 : 세)

年 度	職 級	1	2	3	4	5	6	7	8	9	平均
1962 ¹⁾		44	40	46	42	39	39	34	34	32	34.5
1978 ²⁾	國 家	48	49	47	46	41	41	35	31	25	34
	地 方		49	48	49	45	42	35	31	25	34
1983 ³⁾	國 家	48	50	49	48	43	43	36	32	28	36
	地 方		52	52	50	47	43	36	30	28	35
1988 ⁴⁾	國 家	50	52	51	49	44	44	37	33	30	37
	地 方		51	52	53	50	45	36	32	29	37

- 註 : 1) 全 公務員 234,287명을 조사한 것이며 여기의 平均年齡은 여기의 1~9급 外에 別定職(36歲)과 雇傭員(32~33歲)을 포함 한 것이다.
 2) 一般職 公務員에 한정되어 있으며 平均年齡은 여기의 1~9급外에 기능직(35~36歲)을 포함한 것이다.
 3) 一般職 1~9급만 대상으로 한 平均年齡이다.
 4) 一般職 1~9급만 대상으로 한 平均年齡이다.

年齡面에서 특색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최근에 올수록 계속 老齡化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국 직후나 60年代에 비하여 공무원의 근무년수가 길어짐과 동시에 정년도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日本⁵⁾에 비하면 젊은 편이라고 하겠다.

② 職級別로도 老齡化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승진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全面的으로 1級이 下位職보다 젊게 되어 있는 것은 1級은 사실상 一般職이 아니므로 外部로 부터 特探가 많기 때문이며 1962년의 경우 2級도 젊은 것은 4·19부터 특히 5·16 직후 까지 大量的인 해직과 신규채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5) 日本의 경우 40歲를 초과하고 있다.

④ 고급공무원의 경우 地方公務員이 年老한 것은 5급공채가 적고 거의 다 下級公務員에서 승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⑤ 5급과 6급의 차이가 국가공무원의 경우 거의 없는 것을 5급의 경우 公探로 젊은이가 많이 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⑥ 1962년에 비하여 그후의 年齡이 오히려 젊어지거나(8·9급) 또는 별로 老齡化하지 않은 이유(7급)는 近來에 이르러 7급과 9급에 많은 수의 공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앞으로 5급과 7급에 공채자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年齡이 젊어질 수 있으며 職級間의 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性 別

종리 行政人 중에 女性이 적었으며 一般職 高級公務員中에는 너무나 적어 별도 관심이나 연구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 통계조사한 것이 거의 없어 여기서는 불가피하게 1974年 부터 제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1974, 1978, 1983以後 1988年의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性 別 公 務 員 數 (단위 : 명, %)

年 限	國 家 公 務 員			地 方 公 務 員		
	計	男	女	計	男	女
1974	138,207	122,480	15,727(11.4)	72,724	69,714	3,010 (4.2)
1978	150,636	131,394	19,242(12.8)	87,573	81,147	6,426 (7.3)
1983	171,141	140,531	30,610(17.9)	176,227	147,445	28,782(16.3)
1988	164,942	138,157	26,785(16.2)	207,187	177,280	29,907(14.4)

우선 ① 1988年의 국가공무원수가 감소한 것을 전매청의 公社化에 기인하는 것 같고 ② 국가 공무원의 경우 1974, 1978年은 1~5급 까지의 一般職과 技能職만 포함하는데 반하여 1983, 1988年은 고용원도 포함한 것 같다. ③ 지방공무원의 경우 1974, 1978年은 1~5급의 一般職만 포함하고 있는데 반하여 1983, 1988年은 기능직, 고용원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가 급팽창하고 있다. ④ 통계의 기준, 내용면에서 동일하지 않아 확실하게 언급할 수는 없으나 계속 女性職員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의 경우 1980年代에 이르러 女性이 급증한 것은 범위에 女性이 많은 기능직, 고용원이 내포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 一般職 公務員에 한정하여 性別 人員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一般職公務員의 性別人員數 (단위 : 명, %)

年度	職級	1	2	3	4	5	計	
1978	家 國	男	60	281	428	3,049	6,613	10,431
		女	—	3	5	30	57	
	地 方	男	—	4	24	472	4,048	4,548
		女	—	—	2	6	55	63(1.4)
1983	家 國	男	38	242	365	2,674	6,565	9,884
		女	—	1	3	21	65	
	地 方	男	—	3	22	415	6,128	6,567
		女	—	—	—	10	77	87(1.3)
1988	家 國	男	61	313	362	2,496	6,815	10,047
		女	1	1	1	3	51	
	地 方	男	—	11	77	679	7,814	8,581
		女	—	—	—	—	31	31(0.36)

우리나라의 경우 女性公務員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주자의 사실이나 특히 一般職의 경우 적었으며 최근에 급팽창하는 것은 9급의 경우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5級 이상의 경우 아직 우리는 너무나 그수가 적다고 하는 것이 數字上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表의 특색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女性의 경우 國家나 地方公務員의 경우 거의 다 같이 1%미만의 극소수이며 특히 地方公務員의 경우 1, 2, 3급의 경우 전무상태와 같다고 하겠다. 이의 원인은 여성의 경우 6급에서 내부승진도 용이하지 않은데다 고시 합격자의 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이다.⁶⁾

② 78년부터 88年間 여성공무원의 경우 國家나 地方 모두 오히려 절대수나 비율면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이해하기 곤란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宗 教

종교의 경우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지만 주로 기독교(천주교포함)와 불교가 극류를 이루고 있으나 전 공무원의 약 반수가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며 또 여기서는 이 두가지만 통계를 제시 하려고 한다.

이 통계상의 특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인이 믿고 있는 종교는 여기에 제시된 78년 이후만이 아니라 50年代 60年代의 조사에서도 계속 天主教를 포함한 기독교와 불교가 大宗을 이루고

6) 日本의 경우 최근에는 여성이 고시 합격자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9〉 國家公務員 一般職(1~9급)의 宗教別 (단위: 명, %)

年度	宗教						
	計	기 독 교	천 주 교	불 교	기타	무 교	
1978	1	60	8(13.3)	2 (3.3)	13(21.7)	5	32(53.3)
	2	284	41(14.4)	11 (3.9)	64(22.5)	21	147(51.8)
	3	433	64(14.8)	20 (4.6)	118(27.3)	35	196(45.3)
	4	3,079	411(13.3)	124 (4.0)	811(26.3)	232	1,501(48.7)
	5	6,670	879(13.2)	318 (4.8)	1,694(25.4)	407	3,372(50.6)
	6~9	72,221	10,480(14.5)	3,481 (4.8)	16,049(22.2)	3,907	38,304(53.0)
1983	1	38	4(10.5)	3 (7.9)	7(18.4)	0	24(63.2)
	2	243	44(18.1)	10 (4.1)	43(17.7)	12	134(55.1)
	3	368	70(19.0)	16 (4.3)	85(23.1)	26	171(46.5)
	4	2,695	466(17.3)	171 (6.4)	654(23.9)	156	1,248(46.3)
	5	6,630	1,225(18.5)	433 (6.5)	1,558(23.5)	343	3,071(46.3)
	6~9	71,602	13,054(18.2)	4,332 (6.0)	15,774(22.0)	2,998	35,444(49.5)
1988	1	62	12(17.7)	9(14.5)	9(14.5)	—	32(51.6)
	2	314	65(20.7)	21 (6.7)	63(20.1)	18	147(46.8)
	3	363	80(22.0)	29 (8.0)	85(23.4)	8	161(44.4)
	4	2,499	515(20.6)	230 (9.2)	550(22.0)	122	1,082(43.3)
	5	6,866	1,388(20.2)	684(10.0)	1,623(23.6)	208	2,863(41.7)
	6~9	63,639	12,085(19.0)	5,223 (8.2)	14,453(22.7)	2,337	29,541(46.2)

있다.⁷⁾

② 그러나 이들 두종교와 기타 종교를 합해 모든 종교신앙자의 수가 전체의 半을 전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신앙이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와 다르다.

③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신자가 여기의 통계에서는 78년의 경우 불교신자보다 少數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거 3개의 조사에서는 계속 기독교와 천주교신자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④ 불교의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나 1983년 부터 기독교와 천주교신자가 불교를 잃어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고급공무원의 경우도 分明하게 나타나고 있다.

⑤ 특히 기독교와 천주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다 보니 과거에는 大體 20%内外였는데 최근에는 30%에 육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⑥ 이와 같이 종교신앙자가 증가하다 보니 무신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

7) 朴東緒, 「韓國官僚制度의 歷史的 展開」 韓國研究圖書館, 1961, p. 313. 중앙청의 국과장에 대한 조사, 朴東緒, 「韓國高級公務員의 문제점」, p. 303. 朴東緒, 韓國行政의 發展, 法文社, 1980. 이조사는 1962년에 4級 이상에 대하여 질의 조사한 것임. 이들의 경우 다같이 기독교는 20%内外이고 佛敎는 10% 内外임.

하여 이제 50% 以下로 내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任用方法別(公採率)

여기의 任用方法別은 최초 임용될 당시의 方法으로서 公開競爭採用과 特別採用을 의미하며 初任級은 고급공무원에 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의 公採率은 9급이나 7급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표 10〉 一般職 國家公務員의 初任方法別 (단위 : %)

年度	方法		年度	方法	
	公採	特採		公採	特採
1974	48.9	51.1	1983	75.3	24.7
1978	74.3	25.7	1988	76.2	23.8

註: 1974년의 경우는 기능직이 포함되어 比率이 낮음.

이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특색은 다음과 같다.

① 公採率이 1974年를 除外하고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는 것이다. 1974年의 경우 같은 것은 여기의 一般職에 기능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이와 같이 70年代 이후 公採率이 높아진 것은 60年代 이후 9급과 7급의 公採者數가 급증하였으며 5급에의 공채는 70年代 이후 급증했으나 워낙 그 수가 전체 일반직 공무원수에 비하면 적어 별로 여기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③ 公採率이 최근에 이룰수록 점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公採率이 100%가 가장 바람직한 것도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特採의 경우 공인성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공정하게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採用하는 경우는 어느 나라 어디서나 인정되고 있다고 하겠다.

〈표 11〉 一般職 國家公務員(1~5급)公採率

年度	職級				
	1	2	3	4	5
1978	$\frac{23}{60} = 38.3$	$\frac{108}{284} = 38.0$	$\frac{200}{433} = 46.2$	$\frac{1,582}{3,079} = 51.4$	$\frac{4,327}{6,670} = 64.9$
1983	$\frac{23}{38} = 60.5$	$\frac{146}{243} = 60.0$	$\frac{228}{368} = 62.0$	$\frac{1,795}{2,695} = 66.6$	$\frac{4,859}{6,630} = 73.3$
1988	$\frac{35}{62} = 56.5$	$\frac{220}{314} = 70.0$	$\frac{247}{363} = 68.0$	$\frac{1,839}{2,499} = 73.6$	$\frac{5,348}{6,866} = 77.9$

이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2급보다 4,5급으로 내려올수록 公採率이 높다. 이것은 4,5급이 年少하

고 任用年度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전술한 公採率의 高率化傾向과 一致되기 때문이다.

② 1급의 경우 최하이며 2급보다 상당히 알는데 이의 原因은 1급이 실제로 있어서 一般職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아 特採가 많기 때문이다.

③ 1978년 보다 10年後인 1988년에 이르면서 公採率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은 多幸이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기의 公採에는 반드시 5급에 高試로 初任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一般의으로 우수인력에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급·부터 5급까지의 고급공무원중 各種 高試合格者數를 정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丑 12〉 高試合格者數

年 度	種 類		行政高試		技術高試		外務高試		計	年平均
	數	年平均	數	年平均	數	年平均				
949~62	374	26.7	0	0	50	3.6	424	30.3		
963~69	265	37.9	36	5.1	46	6.6	347	49.6		
970~80	1,813	164.8	503	45.7	330	30	2,646	240.5		
981~88	935	116.9	284	35.5	188	23.5	1,407	175.9		

이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색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여러 高試中 行政高試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70年代前에는 그의 수가 너무나 적었으며 따라서 공무원의 질 향상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② 時代別로 보는 경우 70년부터 80년간에 공통적으로 증가했다가 그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의 原因은 그간 合格者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요망이 學界로 부터 높음이 나 구현되지 않다가 70년부터 선발 예정인원을 1969년의 60명으로부터 170명으로 증가하더니 그후 1973년에는 2회에 걸쳐 300명까지 증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험관리의 잘못으로 예정인원을 다 선발시키지 못하다가 이에 근접 또는 예정인원을 전원 선발하게 된 것은 1975년부터이며 따라서 급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81년 이후 다시 감소하게 된 것은 1977년부터 3軍士官出身에 특채로 대거 5급으로 임용되기 시작하자 과잉상태가 야기되어 1981년부터 선발예정인원을 다시 150, 더 나아가 100명(1983~1986년간)으로 감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후 과잉상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6共に 들어서 士官出身 特採

제가 廢止됨에 따라 예정인원이 다시 약간씩 증가하고 있어 다시 年平均人員數가 2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신규로 5급 임용되는 자의 40%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아직 더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은 5급 신규임용총수중 이러한 각종고시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것이 고급공무원의 질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우선 통계로 파악 해 보고자 한다.

〈丑 13〉 5級 新規任用別 比率(一般職 國家公務員)

年 度	總 計 (A)	新 規 採 用			昇進比率(D) $\frac{D}{A}$
		小 計	公採(B) $\frac{B}{A}$	特採(C) $\frac{C}{A}$	
1977	1,181	320	193(16.3)	127(10.8)	861(72.9)
1978	1,077	324	220(20.4)	104(10.8)	753(69.9)
1979	908	334	231(25.4)	103(11.3)	574(63.2)
1980	1,036	344	223(21.5)	121(11.6)	692(66.8)
1981	686	277	157(22.9)	120(17.5)	409(59.6)
1982	588	176	106(18.0)	70(11.9)	412(70.1)
1983	564	153	82(14.5)	71(12.6)	411(72.9)
1984	404	111	72(17.8)	39 (9.7)	293(72.5)
1985	534	163	133(24.9)	30 (5.6)	371(69.5)
1986	445	213	153(34.4)	60(13.5)	232(52.1)
1987	757	267	175(23.1)	92(12.2)	490(64.7)
1988	629	198	158(25.1)	40 (6.4)	431(68.5)
1989	619	234	214(34.6)	20 (3.2)	385(62.2)
1990	1,075	253	203(18.9)	50 (4.7)	822(76.5)
1991	877	220	168(19.2)	52 (5.9)	657(74.9)
평 均	759	—	176(23.2)	73 (9.6)	520(68.5)

이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여기의 년한은 특히 公採者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70年代 後半부터 이므로 1976년전의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동일할 수 없는 것이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승진자와 특채자의 比率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높다고 하겠다. 各各 15年間の 平均이 9.6%와 68.5%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公採者의 比率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시기인데도 23.2% 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比率로서 40% 이상을 감안하는 경우 앞으로 17%가 더 증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1977年前, 특히 50年代나 60年代에 比하면 크게 진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1959年 11月 30日 기준통계에 의하면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5,000명 이상 중 高試合格者는 불과 172명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국가공무원 학력 및 급별 경력 실태조사표 국무원사무국, 1960년, p. 9.)

③ 이기에서 제시된 比率의 기록을 15年間 검토하는 경우 기록이 크다고 하는 것이다. 公探의 경우도 최고 34.6%가 있는가 하면 최하는 14.5% 밖에 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사정은 特探의 경우 3.2~17.5%인가 하면 内部昇進의 경우도 2.1~76.5%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의 數나 比率를 一定하게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니나 기록이 2배이상 되는 것은 사전에 人力計劃에 너무나 취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앞으로 고급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特探, 특히 수가 壓倒的으로 많은 内部昇進者의 수를 점진적으로 꾸준히 감축하고 公探者의 수나 比率이 40%선까지 向上되었으면 한다.

⑤ 이기에 地方公務員의 경우는 통계를 획득할 수 없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國家公務員에 比하면 엄청나게 5급 공채자의 수가 적어 앞으로 自治化에 따른 行政의 質的 量的 變化에 맞추어 조속히 地方公務員 5급 공채시험을 창설하여 우수한 人力의 大量充員이 있어야 겠다.

이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금년내에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에 새 行政府가 들어서면 即刻 실천에 옮기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내년을 놓치면 또 곧 이 선거를 하게 되므로 실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公探者 比率를 높여야 한다고 해서 곧 고급공무원의 질이 比例해서 向上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政府도 9급에서 승진해서 고급공무원이 된 경우 언제나 質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단언할 수 없겠으나 그러할 가능성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고급공무원 중 最初任用職級別 統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표에 나타나는 특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5급 初任의 比率이 최저 16.2%부터 47.4%까지 다양하다.

② 1位職級으로 갈수록 5급 初任의 比率이 높다.

③ 7급 初任의 比率이 11.3~35.8%까지 다양하다.

④ 2, 3, 4급에 7급 初任比率이 높다. 이는 7급에 초임 되어도 2, 3, 4급까지 다수 승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들의 初任年度가 1960年代 以前으로 생각되므로 고시 합격자가 적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⑤ 9급 初任은 5.3~57.8%로 다양하다.

〈표 14〉 最初任用 職級別(國家公務員—一般職 1~9급)

職級	年度	初任 職級	계(A)				5(B)		6~7(C)		8~9(D)		기타직	
			1	2	3	4								
1~9계	{	1683	80,576	5	7	13	144	2,082	$\frac{B}{A}$	9,971	$\frac{C}{A}$	66,597	$\frac{D}{A}$	1,757
		1988	69,996	6	16	19	63	2,530		8,427		58,935		
1	{	1983	38	5	—	—	1	18(47.4)		10(26.3)		2(5.3)		2
		1988	62	6	2	4	5	22(35.5)		7(11.3)		16(25.8)		—
2	{	1983	243	—	7	4	14	72(29.6)		87(35.8)		53(21.8)		6
		1988	308	—	14	9	11	91(29.5)		70(22.7)		113(36.7)		—
3	{	1983	368	—	—	9	16	84(22.8)		88(23.9)		156(42.4)		15
		1988	355	—	—	6	9	87(24.6)		95(26.8)		158(44.5)		—
4	{	1983	2,695	—	—	—	113	436(16.2)		725(26.9)		1,340(49.7)		81
		1988	2,457	—	—	—	38	555(22.6)		504(20.5)		1,360(55.4)		—
5	{	1983	6,630	—	—	—	—	1,472(22.2)		1,167(17.6)		3,832(57.8)		159
		1988	6,699	—	—	—	—	1,775(26.5)		1,128(16.8)		3,796(56.7)		—

⑥ 4, 5급의 경우는 9급초임이 근 50%를 上廻하고 있음을 이들의 약 半이상이 9급 초임이라고 하는 점에서 계급제하인데도 승진이 빠르고 용이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9급初任이 4급인 課長級の 半을 점한다고 하는 것은 質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⑦ 1983년과 1988년은 불과 5년의 차이 밖에 없으므로 경향이나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그래도 3, 4, 5급의 경우 5급初任의 比率이 1983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6. 學 歷 別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고등교육 취학률이 급신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급공무원은 그의 직책상 그中에서도 고학력자가 임용되게 되므로 학력면에서 볼적에 급신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職級에 따라 學歷의 차이는 나타나고 있다. 다 같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고급공무원이지만 차이가 있으며 특히 3, 4, 5급간의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② 1959년에는 學歷이 저급하였으나 1966년에 급증하다가 1978년에는 거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1983년부터는 더 이상의 高學歷化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나 大卒이상중 碩·博士學位 所持者 比率이 上昇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표 15〉 學歷別 職級別(一般職 國家公務員)

職級	年 度	學 歷				
		計	大 卒 以 上	初 級 大	高 校	中 學 以 下
1	1:59	—	—(—)	—(—)	—(—)	—(—)
	1:66	—	—(—)	—(—)	—(—)	—(—)
	1:78	60	52(86.7)	4(6.7)	2(3.3)	2(3.3)
	1:83	38	38(100)	—(—)	—(—)	—(—)
	1:88	62	58(93.5)	2(3.2)	2(3.2)	—(—)
2	1:59	—	—(29.9)	(49.4)	(16.2)	—(1.9)
	1:66	—	—(61.4)	(20.2)	(11.4)	—(2.6)
	1:78	284	259(91.2)	12(4.2)	13(4.6)	0(—)
	1:83	243	237(97.5)	3(1.2)	3(1.2)	0(—)
	1:88	314	296(94.3)	10(3.2)	7(2.2)	1(0.3)
3	1:59	—	—(—)	—(—)	—(—)	—(—)
	1:66	—	—(48.25)	—(24.4)	—(21.9)	—(3.5)
	1:78	433	382(88.2)	23(5.3)	24(5.3)	4(0.9)
	1:83	368	340(92.4)	15(4.1)	10(2.7)	3(0.8)
	1:88	363	339(93.4)	14(3.9)	8(2.2)	2(0.6)
4	1:59	—	—(18.3)	—(27.2)	—(33.0)	—(18.9)
	1:66	—	—(46.2)	—(15.6)	—(29.2)	—(3.7)
	1:78	3,079	2,442(79.3)	224(23.5)	329(10.7)	84(2.7)
	1:83	2,695	2,270(84.2)	162(6.0)	210(7.8)	53(2.0)
	1:88	2,499	2,127(85.5)	168(6.7)	177(7.1)	27(1.1)
5	1:59	—	—(15.3)	—(14.9)	—(34.0)	—(29.4)
	1:66	—	—(43.7)	—(6.6)	—(37.8)	—(7.2)
	1:78	6,670	4,665(69.9)	755(11.3)	998(15.0)	252(3.8)
	1:83	6,630	4,760(71.8)	776(11.7)	950(14.3)	144(2.2)
	1:88	6,866	4,930(71.8)	738(10.7)	1,065(15.5)	133(1.9)

註: 3급의 1959년은 2급에 통합되었음.

③ 이러한 高學歷化의 수준은 先進諸國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음을 물론 오히려 比率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⁸⁾

④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 고등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및 질의 문제라고 하겠다. 아직 실력보다 간판에 매달리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7. 專攻學科別

전공학과에 관한 정보는 적어 장기간에 걸친 變化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여기서서는 일단 직급별로 되어 있지 않으나 1962년의 것과 1966년의 것을 제시하고

8) 선진국의 경우도 미국만 높고 타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지 못하다.

〈표 16〉 專攻學科別

(단위 : %)

年度	專攻	人 文	法 政	經 商	自然科學	其 他	未 詳	計
1962 ¹⁾	—		24.9	8.1	24.9	9.4	32.7	100
1966 ²⁾	3.5		23.5	14.9	31.8	1.2	25.1	100

註 : 1) 朴東緒, 「韓國高級公務員의 문제점」에서
 2) 俞 焘, 「韓國高級公務員의 社會的 背景」에서

직급별은 1978, 1983 및 1988년의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표의 특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양 년도의 조사대상이 직급에 있어서 약간의 차는 있으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② 未詳은 大學修學者가 아니거나 또는 人文高出身일 것이며 그의 比率이 따라서 1966년에 감소하고 있다.
- ③ 1962년에 人文이 없으면 其他가 9.4%나 되는 것을 감안할 적에 그속에 채포되어 있을 것 같다.
- ④ 自然科學 보다 社會科學專攻이 어느 경우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 당시로서는 이해가 가기는 하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 ⑥ 1962년에 비하여 1966년의 경우 經商과 自然科學의 比率이 약간 증가하

〈표 17〉 專攻學科別(一般職 國家公務員)

職級	年度	專攻						
		計	人 文	法 政	經 商	自然科學	其 他	未 詳
1	1978	60	5 (8.3)	30(50.0)	5 (8.3)	11(18.3)	1 (1.7)	8(13.3)
	1983	38	5(13.2)	20(39.5)	6(15.8)	6(15.8)	1 (2.6)	0
	1988	62	12(19.7)	30(49.2)	9(14.5)	8(13.1)	1 (1.6)	2 (3.2)
2	1978	284	24 (8.5)	123(43.3)	39(13.7)	66(23.2)	7 (2.5)	25 (8.8)
	1983	243	25(10.3)	117(48.1)	44(18.1)	48(19.8)	6 (2.5)	3 (1.2)
	1988	314	49(15.6)	143(45.5)	53(16.9)	46(14.6)	14 (4.5)	9 (2.9)
3	1978	433	33 (7.6)	169(39.0)	55(12.7)	112(25.9)	13 (3.0)	84(19.4)
	1983	368	35 (9.5)	165(44.8)	60(16.3)	83(22.6)	12 (3.3)	13 (3.5)
	1988	363	51(14.1)	176(48.5)	54(14.9)	53(14.6)	19 (5.2)	10 (2.8)
4	1978	3,079	250 (8.1)	1,002(32.5)	404(13.1)	728(23.6)	58 (1.9)	637(20.7)
	1983	2,695	242 (9.0)	960(35.6)	485(18.0)	665(24.7)	79 (2.9)	264 (9.8)
	1988	2,499	307(12.3)	904(36.2)	505(20.2)	490(19.6)	87 (3.5)	206 (8.2)
5	1978	6,670	418 (6.3)	1,713(25.7)	897(13.4)	1,504(22.5)	133 (2.0)	2,005(30.1)
	1983	6,630	548 (8.3)	1,933(29.2)	1,170(17.6)	1,661(25.1)	215 (3.1)	1,103(16.6)
	1988	6,866	826(12.0)	1,838(28.2)	1,252(18.2)	1,532(22.3)	215 (3.1)	1,203(17.5)

고 있음은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전공학과별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人文學 專攻은 적지만 증가경향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下位職으로 올수록 人文學의 比率은 약간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② 法政學 專攻은 과다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종래의 行政職別 위주의 一般行政人 中心의 行政을 해온 유산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下位職의 경우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역시 고위직으로의 승진가능성이나 용이성은 法政系가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최근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法政의 學科別 內譯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法學보다도 政治, 行政學專攻者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③ 經商系는 法政에 비하여 월등히 적은 것은 과거에 이 분야에 대한 상대적인 경시와 이 분야 전공자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기인하는 것 같다. 그러나 4,5급의 경우 약간 상위직의 경우 보다 比率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978년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1983, 1988년에 이르러 比率이 증가하고 있음은 이分野의 중시경향과 전공자의 質的 水準이 급상승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行政의 政策 내용과 비추어 볼 적에 바람직한 것이다. 하겠다.

과거에는 法政出身도 행정경험을 통해서 경제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經商專攻者가 증가하는 것은 行政發展을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④ 自然科學의 범위가 대단히 넓고 날이 갈수록 중요시되어야 하는데 이 전공자가 차지하는 比率이 너무나 과소할 뿐만 아니라 고위직으로 갈수록 比率이 적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술한 法政의 경우와 相反되는 것이며 승진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동시에, 더욱 유감으로 생각되는 것은 최근에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없으며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行政機能의 변천이나 현 행정의 政策내용에 비추어 볼 적에 시대역행적인 것이라고 하겠으며 신속한 시정이 요청된다. 하겠다.

⑤ 未詳 즉 大學未就學者는 적으며 4,5級의 경우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고등교육취학의 급진전에 따라 근래에 이르러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식적인 學歷만으로 보면 우리의 경우 선진국수준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문제는 질적인 내용이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大卒이상 즉, 석·박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에 석사학위 소지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도 學位보다 질이 문제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Ⅲ. 結 語

우리가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社會現象이나 行政現象이 야기되는 요인으로서 여러가지를 다양하게 論者에 따라 들 수 있었으나 이러한 현상이나 행동을 하는 社會人이나 行政人은 당연히 중요시되어야 하나 이 외에 그가 결정이나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構造, 즉 社會構造나 行政構造는 물론이고 이와 동시에 國內外的 環境도 증시되어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이 어떠한 하나의 현상이나 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社會現象이나 行政現象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며 어려운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며 행정현상의 설명이나 예측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서 연구할수록 겸손하게 되며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行政學徒로서 인정 받을만 하게 되는데 대단히 오랜 歲月이 소요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들 중 行政人을 위주로 연구한다고 해도 그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경우 실제 큰 영향을 미치거나 크게 고려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너무나 다양하여 설사 그러한 요인들이 몇가지로 정리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어떠한 특수한 결정을 하는 경우 그들 중 무엇이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사후에 면접, 질의를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솔직한 답을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도 설명이나 예측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수 많은 行政學徒들이 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교적 일찍이 지적된 것이 成分이라고 하겠다.

물론 그후 가치관, 동기, 및 인지 등이 제시되고 중요시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성분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았으며 그와 같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行政研究에 도움이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특히 가치관이나 동기, 인지 등에 비하여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權力을 장악하고 있는 行政人이 어떠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데 成分이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에 유익한 여러 내용을 항목별로 파악하여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으나 유감히도 이번 연구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 와 같이 총망라하려면 연구대상이 되는 一般職 國家公務員 1~5級の 전원이나 대표성있는 표본을 뽑아 알고자 하는 성분상의 항목을 설문서 형식으로 보더 어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한사람의 學徒의 力量으로서 不可能한 것이 主因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기존문헌이나 연구논문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정리할 수 밖에 없어서 이번에는 成分의 구성내용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몇가지 사항들이 누락될 수 밖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 된다. 이를 예시하면 出生地나 成長地, 前歷으로서 軍人出身與否, 出身大學, 父母의 經濟力이나 職業 등과 같은 出身成分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기존문헌이 너무나 단편적이고 부분적이어서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이번에는 여기서 다루어진 公務員數, 年齡, 性, 宗教, 任用方法, 學歷 및 專攻學科 등에 관해서는 職級別로 특색과 변천을 정확한 事實에 입각해서 정리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며 행정연구에 도움이 약간이나마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다.